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보험사 자산운용 채권투자 비율 상향 조정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서 채권투자 비율 및 투자대상 기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채권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와 <보험회사 채권매입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잇달아 발표함.
 - 이전까지 보험회사들은 회사채 투자금액이 직전분기 총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한비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어 채권투자 비율이 현실화됨.
 - 또한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채도 직전 3개년도 연속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이 기간에 실현한 연평균 순이익이 회사채 1년 이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수정되어 채권 투자비율 상향조정과 함께 투자대상 회사채의 이익조건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취해짐.
-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는 추가적인 채권투자, 투자대상 기업 확대 등의 채권투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필수적인 보험산업 특성상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 등 글로벌 증시가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하자 중소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급락하며 경영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자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채권투자 선호 현상이 재확산 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채권투자 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약 3천억 위안 규모의 추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고, 보험회사의 투자대상 회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채권투자 중심의 자산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1세기경제보도, 10/21)